



불화 + 캐릭터, 코드가 맞았군!

‘불화와 캐릭터 디자인의 만남’ 성황

청소년 불자 뜨거운 관심 표명, 스님들도 ‘격찬’

불교계 최초로 열린 ‘불화와 캐릭터 디자인의 만남’ 전이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불화 속에 나타난 부처, 보살, 신중들이 디지털 기술과 현대 디자인 기법의 접목으로 현세에 화려한 캐릭터를 보기위해 매일 200명

이 넘는 불자들이 전시장을 다녀갔다. 이번 전시는 중·고등학생 불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는 이근우 교장이 네트워크 디자인과 서정화 선생님과 캐릭터에 관심이 있는 학생 40명을 데리고 전시장을 찾았다. 캐릭

터 산업의 주역이 될 것을 꿈꾸는 학생들이어서 전시장 관계자에게 캐릭터가 개발된 과정을 소상히 묻는 등 특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학생들을 인솔한 서정화 선생님은 “그동안 개발된 캐릭터가 미국과 일본의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한국적 이미지, 그것도 불화를 보다 현대화된 캐릭터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겨겨가는 불빛에 새 생명을 불어

넣은 것 같은 느낌”이라며 “불화라고 하면 거리감을 느끼게 되지만 이번 캐릭터 전시회를 통해 학생들이 불화 뿐만 아니라 어렵게 느껴졌던 불교에 대해서도 쉽고 재미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 외에도 부천 동중학교, 일산 백마중학교, 동진 종합고등학교 학생들과 중·고등학교 불교학생회 회원들이 다수 전시장을 직접 방문했다. 특히 이들 청소년 불자들은 방문록에 “짜이다”, “넵 멋져”라는 한글 표현을 비롯해 “=w=”, “T.T”, “_||_” 등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자신들의 의사표시를 해 눈길을 끌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미술계 인사들도 다수 전시장을 찾아 쳐음으로 시도되는 현대화된 이미지의 불화 캐릭터를 관람했다.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선 소장은 “이번 전시는 불교계에서 처

음 시도되는 장르로 앞으로 이같은 불교문화콘텐츠 분야가 새롭게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시회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 교수는 “색의 화려함에 비해 전체적인 통일감이 떨어지고, 인물 복장이 중국풍인 점과 지물의 표현이 다소 서툰 것이 보완되어야 할 과제”며 선이 조금 더 간결했으면 좋겠다는 애정어린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영천 만불사 회주 학생 스님은 전시장을 둘러보고 난 이후 대구에서도 전시회를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즉석에서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캐릭터를 개발한 디자이너와 함께 현재 만불사에서 추진중인 이미지 통합작업을 같이 해 보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해원 스님은 “일본의 경우 불교관련 소재 시나리오, 캐릭터 등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며 “앞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불교소재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의 경향신문,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 일간지와 분지, 종교신문, 월간 캐릭터 등 전문지에서도 이번 전시회를 소개했고,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KBS 라디오 사회교육방송 ‘종교와 인생’ 프로그램에도 전시회가 소개되는 등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전시회에 작품을 낸 정석규 호남대 교수는 “문화콘텐츠는 한가지 소재가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원소 멀티유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이 완구, 팬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불교문화상품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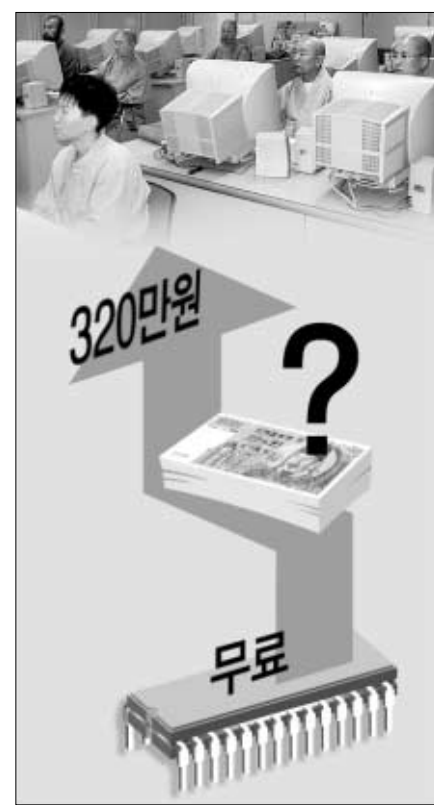
종무관리 프로그램

무료~320만원 까지?

사람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무관리 프로그램들의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관리·교육제도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92년 불교계 최초로 개발되어 가장 널리 보급된 종무관리 프로그램인 ‘아란타’는 줄곧 무상 AS 1년 조건으로 150만원에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윈도우 버전 출시 이후 ‘달마’로 이름을 변경한 ‘아란타’는 보증기간이 끝난 후부터 매년 30만원의 유지보수비를 받는다. 지난 10년동안 꾸준히 업데이트를 지속해 많은 사람에서 사용되고 있고 있는 ‘금강장사’도 업무처리 용량에 따라 프로그램 가격을 51만 3천원에서 320만원까지 받고 있으면 설치비와 1년 회비를 10만원에서 56만원까지 받고 있다. 그 외 경향신문,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 일간지와 분지, 종교신문, 월간 캐릭터 등 전문지에서도 이번 전시회를 소개했고,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KBS 라디오 사회교육방송 ‘종교와 인생’ 프로그램에도 전시회가 소개되는 등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전시회에 작품을 낸 정석규 호남대 교수는 “문화콘텐츠는 한가지 소재가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원소 멀티유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이 완구, 팬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불교문화상품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종무관리 프로그램의 적정 가격이 50만원정도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개발 업체와 실 사용자간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보급보다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종무관리 프로그램도 사후 관리를 위해 일정 금액을 받고 있어 개발업체에서는 직접 사찰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고장 시 전화 신고를 받고 방문 수리를 해 주고 있다. 조계종도 매년 2차례 전산 종무원을 대상으로 가림지기의 재무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찰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방문 수리를 해 준다 하더라도 그대 뿐, 실무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개발 업체와 불교정보화협의회 같은 불교단체, 종단 등에서 스님들과 전산 종무원을 대상으로한 상시적 컴퓨터 교실 운영 등의 정보소양 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방문 수리 및 1:1 교육이 효과가 없다면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전체 집체 교육 형식의 교육도 이루어져야만 한다. 김두식 기자

사용자, 적정가격 50만원
업체와 입장차 커
실무자 특성 고려한
AS, 정보교육 절실



회계 방식의 재무회계 프로그램과 신도관리 프로그램을 합친 ‘가림지기’를 연간 유지 보수비 40만원을 받고 종단 산하 사찰에 보급하고 있다. 종무관리 프로그램 개발 업체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업체마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실 사용자인 스님이나 전산 종무원들도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가격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불교종단협의회 등이 지난해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불교정보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님들은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정토진중 동본원사

(http://www.tomo-net.or.jp)



진중의 가르침, 역사, 관련사진 열람

사찰 곳곳 관광할 수 있는 코너 마련

사, 종조 친난스님, 연여스님, 불교의식과 출판물 소개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불교 동화도 마련되어 있다. 진중대국파에서 출간하는 월간 <동봉> 5월호의 일부 기사도 서비스 한다. ‘방문자 가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동본원사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함께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종조 친난스님의 목상을 모신 건축물로 세계 최대의 목조 기념물인 여영당과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인 아미타당을 비롯해 정월인 심성원, 종조 친난스님의 묘소인 대국조묘 등이 관심을 끄는 곳이다.

일본 진중대국파(동본원사)에서 운영하는 토모넷(http://www.tomo-net.or.jp)은 진중의 공식 사이트로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동본원사는 교토에 위치한 명칭으로 일본 정토진중(열불종) 대국파의 본산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진중의 가르침, 본원사의 역

개시판 연보기

○수행이라는 것이 없는 것을 있게(깨닫게)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계속 닦는 것이란 말씀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성법, 탐심, 어리석음이 그 더러움의 근원이 아닐지.

무상, 보리수선원개시판

○부처님도 왕궁이나 부모 처자보다 생(生), 노(老), 병(病), 사(死)의 마에 끌려가지 않는 일이 더 급한 것을 깨닫고 출가하여 대열반락을 얻었으니, 우리 중생은 생, 노, 병, 사가 무서운 줄 알고 위대한 열반박을 구한 뒤에, 먹던지 자던지 해야 합니다.

도리, 선객회원개시판

○내가 부처라는 것. 하루 하루 시간 시간 순간 순간을... 나는 부처다. 부처 아닌게 없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절로 나오는 미소... 그 미소가 부처 인가 봅니다.

관심, 목탁소리도반의 향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사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02) 396-2736 · HP 016) 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okbat@kornet.net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개·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사명	활용지역	지사장명	주소 및 연락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렬	부산 동구 범일 2동 830-50 정육빌딩 503호 051)632-0064 / 011-219-5066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녕 / 의령	해봉스님	경남 밀양시 무안면 마홀리 213 용정사 055)353-1196 / 017-650-1196
대구지사	대구·경북	손문철	대구 수성구 중동 532-274 053)768-8008 / 016-813-8008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경북 영주시 휴천1동 705-7 4 / 054)634-3429 / 011-9373-3778
광주지사	광주·전남	주용직	광주 서구 치평동 210-6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강릉일원	전유진	강원 강릉시 노암동 397 서일아파트 A동 503호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48-19 현대불교사 063)255-2274 / 011-9644-4579
동해지사	동해 / 삼척	해동스님	강원도 동해시 단봉동 산 14번지 성불사 033)521-6293 / 019-9767-6297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충북 청주시 용담동 120-1(115/2) 광덕사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대전시 서구 월평동 807번지 불교조각원 지하 042)489-9390 / 017-433-6523

승복 범복 인네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 1. 먹물, 마직** 적삼·바지: 150,000
동방·바지: 180,000
두루마: 150,000
- 2. 무명 수재·한국산 먹물 염색** 적삼·바지: 180,000
동방·바지: 220,000
두루마: 180,000
- 3. 모시론 (폴 안헤도 뽀)** 적삼·바지: 150,000
동방·바지: 180,000
두루마: 150,000
- 4. 면 래우사 특징 - 세탁시 폴 안헤도 뽀** 적삼·바지: 130,000
동방·바지: 160,000
두루마: 130,000
- 5. 장삼 특징 - 기법고 통풍이 잘됨** 모직: 180,000 ~ 250,000
염비늘: 200,000
- 6. 신도복 (단체주문분합니다)** 조끼·바지(모직회색): 60,000
- 7. 셔츠(차이나 라운드) · 걸방 · 손가방**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지아절 공양로역 3번출구(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8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053-256-0108
공장: 053-425-4449
휴대폰: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포항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지압 건강 천하

(발명특허품) (발명특허 제0306046호)

LIHIS 건강 지압 양말
LIHIS 건강 지압 보호대
EVERLIS 건강 지압 팬티
EVERLIS 건강 지압 내의

쾌적함 온열감, 습윤감 등으로 인하여 쾌적함, 숙취해소, 무좀, 습진, 발냄새 제거, 땀냄새 제거, 건피부, 피부노화방지,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청바지, 지압 장갑, 브라자 속지, 거들, 허리 건강 벨트 등 지압실로 만든 제품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바랍니다.

(주) 화동 섬유

문의전화 (053) 582-1244~5